

###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0

# ‘좋은 술 만들기’ 63년 레이스 지역사회 공헌도 끊임없는 질주

## 보해양조

“달리니까 청춘이다”, 지역민의 꿈과 소망을 기원하며 달리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는 지역 대표주류기업 보해양조 임직원의 제48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출사표다. 보해양조 임직원은 광주·전남 소주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 처한 지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역민의 소망을 담은 풍선을 매달고 시·도민과 함께 뛸 계획이다.

또한 2013년 목표달성을 위해 젊은 청춘으로써 열정을 불어넣자는 ‘달리니까 청춘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준비하는 등 새

## ‘달리니까 청춘이다’ 구호 내걸고

판매목표 달성·사회공헌 각오 다져 시·도민에 꿈과 희망 전하고파

봄을 여는 3·1절 마라톤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해는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1981년 설립된 보해 덕천장학회는 198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12년까지 총 3472명의 지역 중·고대학생들에게 총 32억9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18일부터는 최근 불경기로 어

려운 음식업주의 자녀 66명에게 19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2004년부터 총 880여명의 학생들에게 2억67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특히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배움을 위해 2006년부터 젊은 인재 사관나눔이 봉사단을 설립해 1기부터 15기까지 독거노인, 불우아동, 장애인 시설 등 총 480여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젊은인재 사관나눔이 16기는 보다 많은 불우이웃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활동이 더 기대된다.

올 3·1절 마라톤 대회에는 광주지점, 영업관리 1팀, 기획조정팀, 정보팀, 장성공장, 보해종합기술원 외에도 목포, 순천지점의 직



올해 창립 63주년을 맞는 보해양조 임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기다리며 판매목표와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기업이 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원들까지 합세해 보해의 올 판매목표와 사회공헌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각오를 다짐 계획이다.

오호교 보해 제1영업본부장은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 좋은 술과 사회공헌으로 보답하겠다”며 “3·1절 마라톤대회는 새봄을 열며 보해의 한 해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중요한 축제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3·1절 마라톤대회 5번째 하프코스에 도전

하는 이효수 순천지점장은 청춘의 열정을 되살려 기록 단축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 지점장은 수차례의 완주경험을 살려 이번대회에서는 반드시 임상을 하겠다고 기업을 토론했다.

주류개발 및 바이오 연구를 맡고 있는 보해종합기술원의 임재휘 부장은 “좋은 술 만들기 63년은 끝없는 레이스, 마라톤과 닮은 데가 많다”며 “완주를 통해 좋은 술 만들기를 위한 끝없는 레이스에 대한 각오를 다지

겠다”고 밝혔다.

매년 3·1절 마라톤대회 개근생인 광주지점 강수연(여)사원은 오는 4월 화축을 올릴 새신랑과 함께 참가해 예비부부의 호흡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추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녀는 이번대회 출전을 통해 신랑의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출전이 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매의 눈’ 여범규 감독이 찍은 스타는?

광양제철고 감독 때  
지동원·윤석영 직접 스카우트  
광주FC 또다른 스타탄생 주목



여범규 감독

눈에 띄어 왼쪽 풀백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그 자리를 맡게 됐다”며 “당시 박경훈 17세 이하(U-17) 대표팀 감독에게 석영이를 추천해줬다. 그때부터

U-17, U-20, 올림픽대표팀 등 각급 대표팀을 합출했다”고 말했다.

직접 발굴한 윤석영과는 2006년 사제 시간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제주까지 날아가서 영입한 지동원과 한솥밥을 먹지는 못했다.

여 감독은 “오현중에 몸이 유연하고 군더더기가 없던 선수가 있었다. 볼 컨트롤도 좋았다. 교장실로 가서 좋은 선수가 있다고 꼭 데려와야겠다고 하면서 영입한 선수가 지동원이었다”며 “그런데 내가 바로 현대고로 옮겨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창단 첫째 K리그 신인왕에 오른 옛 제자 이승엽(전북)도 유심히 지켜봤던 재목이었다.

여 감독은 “작은 선수가 센스도 있고 보기보다 파워가 있어서 눈여겨 봤었는데 키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망설였다”고 웃으며 꼬마 이승엽을 기억했다.

스카우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여 감독이 ‘매의 눈’을 발휘해 또 다른 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카우트가 전력이야.’  
여범규 감독은 광주 FC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골키퍼 코치와 스카우트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력의 주요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스카우트는 꾸준한 성적과 스타 발굴을 위한 주요 포지션이라는 것이 ‘매의 눈’ 여 감독의 생각이다.

지난 2년 광주 수석코치로 활동했던 여 감독은 스카우트로도 활약했다. 조커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한 주앙파울로가 보는 눈이 남다른 여 감독의 작품. 여 감독의 안목은 고교 감독 시절부터 이미 정평이 났다.

여 감독은 광양제철고 감독을 맡았던 2006년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했고, 울산 현대고 사령탑 시절인 2008년과 2010년에는 각각 고교클럽 챔피언스리그와 대통령배 우승을 일궈냈다.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 이끈 성과다.

독일 분데스리가 지동원(아우스부르크)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윤석영(퀸즈파크레인저스)도 여 감독이 장흥과 제주에서 캐낸 진주다.

여 감독은 “(윤)석영이는 장흥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선수였다. 키는 좀 작았지만 신체조건이 괜찮았고, 원반잡이로서 기량이 좋았다. 장흥중에서 대부분 금고교로 진학을 했는데 내가 직접 데려왔다. 원래 미드필더였지만 빠른 스피드가



청야나(대만)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최나연(26·SK텔레콤),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박인비(25), 평산산(중국)의 2~5위도 변함이 없었다.

이 대회에서 3위에 오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는 지난주 30위에서 2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 LPGA 개막전 우승 신지애 세계랭킹 두계단 상승 6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3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시진·25·미래에셋)가 세계 랭킹 6위로 올랐다.

17일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18일 자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 이승엽이 18일 오전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열린 전지훈련 시뮬레이션 경기서 안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1루 이승엽·이대호·김태균 무한경쟁

## KIA, 연습경기 또 졌다

### 지명타자 나서도 1명은 벤치에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의 무한경쟁에 가속도가 붙는다.

류중일 대표팀 감독은 18일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훈련을 앞두고 “내일(19일) NC 다이노스와의 연습경기에서 김경문 NC 감독의 양해를 얻어 이승엽, 이대호, 김태균 3명을 모두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류 감독은 이대호(오리츠)를 주전 1루수로 점찍은 상황이지만 최강의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이승엽(삼성), 김태균(한화) 등 나머지 1루수 후보자들에 대해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세 선수 모두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주

전 1루수와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할 두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은 대타로 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류 감독은 파격적인 타순표를 들고 나왔다. 세 선수의 동반 출격을 위해 아예 타순표를 10번 타자까지 짜기로 한 것이다.

류 감독은 “10명의 타자가 나설 수 있도록 김경문 감독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타격감을 끌어올리려면 세 명 모두 평가전에 꾸준히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 NC와의 4차례 연습경기에서 이승엽, 이대호, 김태균 중 1명을 1루수로, 2명은 지명타자로 내서 타격 컨디션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류 감독은 19일 선발 윤석민(KIA)부터 마무리 오승환(삼성)까지 투수 6명을 등판시킬 예정이다. 선발 투수가 3이닝, 2번째 투수가 2이닝, 나머지 투수들은 1이닝씩을 던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야쿠르트에 2-3, 4경기 모두 패배

‘호랑이 군단’의 승리 사냥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일본 오키나와 무라소에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 2-3 패를 기록했다. KIA는 일본 캠프에서 진행된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4연패에 빠졌다.

앞선 니혼햄, 야쿠르트, 주니치와의 경기에서 모두 역전패를 허용했던 불펜이 모처럼 무실점 행진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타선이 문재였다.

선발로 나온 양현종이 2회 볼넷 3개를 남발하며 2사 만루에 몰렸고, 야마다의 내야 안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선두타자를 내보낸 4회에는 유격수 실책을 더해 2실점(1자

책)을 기록했다.

양현종이 3점을 내줬지만 손동욱-이대환-임준섭-유동훈으로 이어진 불펜진은 깔끔한 계투를 선보이며 무실점 방어했다.

불안하던 불펜이 안정적인 피칭을 보이며 실점을 발휘했지만 타자들은 4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그쳤다.

차일목과 함께 LCK포가 안타를 터트리며 체면치레를 했다. 7회 무사 1·3루에서 이범호가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볼넷으로 출루한 김주찬을 불러들였고, 김상현은 8회 2루타로 출루한 뒤 이승우의 땅볼로 홈을 밟으며 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9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2-3패로 끝났다.

연패에 빠진 KIA는 19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0일 라쿠텐을 상대로 첫 승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b>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b></p> <p><b>(주)대원여행사</b></p> <p><b>062)526-7000</b></p> <p>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p> <p>광주역 525-4835   송정역 941-3278</p>	<p><b>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b></p> <p><b>출발일</b>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p> <p><b>여행비</b> 68,000원</p> <p><b>여행코스</b>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p> <p><b>포함사항</b>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p> <p><b>불포함</b> 식사비</p> <p><b>특전</b>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p>	<p><b>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b></p> <p><b>출발일</b>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p> <p><b>여행비</b> 37,000원</p> <p><b>여행코스</b>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항산공원</p> <p><b>포함사항</b>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p> <p><b>불포함</b> 식사비</p>
--	---	---